

부처님오신날 안방극장 볼거리 '풍성'

음악회·다큐·영화등 BBS도 특집물 다채



◇EBS-TV의 '화두, 열림과 나눔'의 한 장면. 수덕사 교무주경스님이 입산한지 2주일이 된 행자를 식별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방송사마다 다큐멘터리, 음악회, 드라마, 성지순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방송 특집에는 불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풍성하다. 눈길을 끄는 것이 EBS-TV의 '화두 열림과 나눔', KBS-1TV의 '질적·양적 고려대장경', 아리랑 TV의 '새 질 봉원사 사람들' 등.

22일 (오전 11시~오전 11시 40분) 방영되는 EBS-TV의 '화두...'는 행자에서 만행승, 깨달음에 이르는 선승의 수행 모습을 통해 한국선불교를 조명하고, 출가의미를 되새기며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무대는 덕숭산 수덕사. 행자들의 사찰식과 울력, 선봉스님들의 참선 과정, 수덕사 일성스님의 만행 모습 등이 생생히 소개된다. 또 덕숭종림 방장 원담스님에게 올바른 화두 참선법을 들어본다.

같은날 KBS-1TV(밤 8시~밤 9시)에서 방영되는 '질적·양적...'은 고려인들의 불심과 인쇄술의 하이테크가 집약된 팔만대장경의 질적·양적 분석을 통해 대장경의 가치와 세계적인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 시켜 준다. 특히 대장경 복원에 사용된 수종(樹種), 가공, 판각, 표면처리의 과정과 대장경 인쇄본

인 영인본에서 찾아낸 3600명의 명단을 토대로 16년동안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밝혀가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대단한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 팔만대장경의 조성 이유와 대장경 판각지, 운반에 얽힌 사연 등도 고증을 통해 다뤄진다.

아리랑TV(밤 9시~밤 9시 50분)도 '새 질, 봉원사 사람들'을 봉축 특집으로 편성했다. 신촌 봉원사를 무대로 한 이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이수자로 마을을 형성해 불교적인 삶을 이어가

고 있는 봉원사 사하촌의 진솔한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한편 김병조씨의 진행으로 대중가수들이 참여해 흥겨운 봉축 축제 한마당을 펼칠 강화봉축 음악회 공개방송 '우리도 부처님같이' (불교방송, 21일 밤 7시 25분~밤 8시)와 부처님의 번뇌와 구도 과정을 전통 불교음악으로 재 편곡해 서울 중앙관악단이 연주한 '천년의 소리' (불교TV, 22일 오전 11시 40분~오후 1시 10분) 등은 언제 들어도 신명나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부처님오신날 불만한 방송프로

방송사	시간	프로그램	내용
불교TV (bntv) 22일	11:40	천년의 소리	서울 중앙관악단이 공연한 '천년의 소리'를 녹화 방송
	13:10	총무원장 특별대담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에게 새봄을 맞이한 총무원의 모습과 불교계의 미래상 등을 들어본다.
	14:15	연극 '등신불'	인천시립극단이 새로운 작품 해석과 특장적인 어법으로 희곡화한 연극 '등신불'을 녹화 방영한다.
불교방송 (BBS) 22일	09:05	인도에서 만난 선지식들	시인 류시화와 재연스님이 인도여행에서 만난 선지식들을 소개한다.
	11:10	지비로운 미소, 우리 품 안에	김상사 지비스님이 인도 4대 성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17:10	오늘을 밝히는 등불	강화 봉축음악회 및 음악회 실황이 생방송 된다.
	22:05	나의 인생, 나의 영화	리틀스타, 티벳에서의 7년 등 불교영화 음악과 함께 소개한다.
불교방송 (대구)	08:30	기쁜날 모던이와 함께	천주교 대구 대교구 이원희주교를 비롯한 대구 각계 인사들의 봉축 메시지를 대구 대관영인문화회 등관을 조명한 다큐
	15:05	특집다큐 '또 하나의 장애를 담고'	
KBS-1	12:10	특집다큐 '민행'	미국인 천학스님의 민행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얻어가는 과정을 영상화한 로드 다큐
	20:00	역사시계 '고려대장경'	16년동안 만들어진 고려대장경의 질적·양적 분석을 한 다큐멘터리
	24:00	특집다큐 '미소의 원류'	경주에서 그리스까지 불상에 나타난 미소의 원류를 찾아간다
MBC(22일)	11:00	양코르 특집다큐	인도의 4대 불교유적지 소개
	17:10	동화시음악회	대중가수, 국악인들이 함께 꾸민 동화시 시공음악회 녹화실황
대구MBC (24일)	11:00	특집다큐 '보조국사 재발'	보조국사 재발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
	11:00	특집다큐 '화두, 열림과 나눔'	수덕사 행자·민행승 선승 등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조명한 다큐
EBS	11:00	특집다큐 '화두, 열림과 나눔'	수덕사 행자·민행승 선승 등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조명한 다큐
	11:00	특집다큐 '화두, 열림과 나눔'	수덕사 행자·민행승 선승 등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조명한 다큐
O채널	10:00	특집다큐 '멕시코에 피어는 연꽃'	한국에서 건너가 30여년동안 멕시코에서 한국불교를 포교하고 있는 상우스님의 활동을 조명
	21:00	특집다큐 '달아 이야기'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달마사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아리랑TV	21:00	특집다큐 '새 질, 봉원사 사람들'	성과 속이 만나는 신촌 봉원사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그린 다큐멘터리

화제의 전시

고요하고 맑은 선의 세계

이명우 달마전
18~22일 주일문화원



50여년간 달마도를 그리며 선의 정신세계를 넘나드는 소공 이명우씨의 예술세계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주일한국문화원이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18~22일 문화원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이명우 달마전'은 참선과 수행으로 일관한 노서화가의 반세기 송고한 삶속에 투영된 선화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이다. 전시회에서 이화백은 부드럽고 유려한 선으로 달마의 다양한 표정을 담아낸 달마반상도 등 작품 35점이 소개된다.

금도서예의 독특한 멋

조성주 전각·서예전
21~29일 국제신문사

금강경 전문 5천4백자를 1천1백51개의 틀에 안착한 전각작품과 각서체로 쓴 금도(金塗) 서예작품 전시회가 21~29일 부산국제신문사 제1 전시실에서 열린다. 중견 서예전각가 조성주씨가 10년에 걸쳐 완성한 '전각금강경'은 총1천1백51방을 전각 석이나 옥으로 된 방촌의 인쇄(印材) 위에 각 서체별로 모두 새긴 것.

교육·통일염원 도자기·전각작품

김상숙서전
20~26일 백악예원

서예상대로 교육철학을 갈고 닦은 김상숙 교감(동국대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이 15년동안 써온 작품들을 모아 서전을 연다. 20일부터 26일까지 관음동 백악예원에서 열리는 서전에서는 김상숙씨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틈틈히 써 온 작품 47점을 만날 수 있다.

산사·선승 등취 물씬

김성룡 '호의 물' 전
27~30일 통도사



산사의 바람과 햇빛 속에서 화폭 가득 선승들의 등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 설치 미술전이 열린다. 부산불교문화원(원장 원타)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27~30일 통도사에서 공(空)의 물이라는 주제로 김성룡 씨의 설치 미술전을 마련했다. 투명한 색채로 선승의 모습과 선시를 담은 작품 30여점에 통도사의 자연경관이 더해져, 불자들에게 종교·철학적 사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한국화 중견 3인 진경정신전

이호신 문봉선 권기운씨 등 우리나라 한국화를 이끌어 가는 중견작가 3명이 25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 1층에서 '실경산수와 진경정신'을 열고 있다. 우리 선전에 담긴 함축을 조형화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는 이들 3인의 최근 작품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이호신 씨는 무위사 등 사찰 전경과 '환도산성의 겨울' 등 대형 작품으로 실경산수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02)733-9512

대구 향토작가 서화초대전

정병희가서림은 창립 34주년 기념으로 '향토작가서화초대전'을 열고 있다. 20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시민회관 대전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석주 석정섭님 등의 글씨와 그림, 김대환 유영환 조광호씨등 유명 서예가와 화가들의 작품 1백여점이 선보인다. (053)423-8626

"군위마애불은 채색불상"

계명대박물관 밝혀... "회화사 다시 써야"

불상 전면을 채색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명대 박물관(관장 김중철) 조사단은 10일 경북 군위군 소보면 위성동 신라 마애삼존불은 광물성 안료를 사용해 채색한 불상"이라고 밝혔다.

92년 발견됐던 이 마애삼존불은 그동안 두껍게 쌓인 먼지 등에 가려져 불상 윤곽만이 보이는 상태였으나, 계명대 박물관과 계명사학회(회장 정만득)가 정밀조사를 하면서 먼지와 오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채색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마애삼존불은 붉은색을 주조로 하여 얼굴과 옷, 광배 등에 노랑, 녹색, 검정, 그린밀트 색조 등의 광물성 안료 등 다섯 가지 이상의 색으로 채색했다는 것.

지금까지 석굴암 본존불 입술에 붉은색을 칠한 것등 불상 일부 채색한 경우는 극히 드물게 발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전면에 채색된 불상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 중국 고대 불상은 동황석굴에서 보듯, 전체를 채색한 불상이 많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고대 불상도 전체를 채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영현 학예연구팀장(경북대 박물관)은 "이외에 마애불 주위에서 연꽃문양의 채색된 그림 8개와 모양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형태의 채색 흔적을 발견했다"며 "이번 발견은 국내 조각과 회화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대단한 발견"이라고 말했다.

7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마애삼존불은 높이 8m에 '돌을새김(양각)'한 것으로 모두 입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존 250cm, 우협시 220cm, 좌협시 193cm 크기.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탑골공원 영산재·음악회 보러 오세요

불자련 17~21일 문화행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이하 불자연합)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7일부터 21일까지 탑골공원에서 영산재, 작은음악회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새천년 지구촌 화평문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영산재(무형문화재 50호)는 18일 12시 탑골공원에서 봉행된다. 송강스님등 20여명의 스님들이 봉행하는 이번 영산재는 전쟁·환경 등 갖가지 재앙으로 죽어간 고혼의 한을 풀어주고, 21세기 지구촌 평화의 기쁨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19일 12시에는 남·북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작은 음악회'도 개최한다. 결식아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합창단, 니르바나 실내악단, 청룡사 어린이합창단 등이 참여한다. 결식아동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후원 및 결연신청 행사도 펼쳐진다. 또 무형문화재 3호 이수자인 학산 김덕명 선생이 21일 3시 지성승무, 양반춤, 찬타가, 사찰학춤, 연등바라리 등을 공연, 사찰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한편 불자연합은 17일부터 21일까지 소외계층에 소망의 연등을 달아주는 '무차연등회'와 '탑돌이'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IMF를 맞아 함께 사는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02)723-6258 오종욱 기자

세대·종교벽 넘은 '자비 하모니'

천태종·삼소회 등 봉축음악회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음악회가 종교와 세대를 초월해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6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4백여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공연됐던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 기념연주회', 국립극장관현악단의 반주로 진행된 이 음악회는 찬불가와 찬불가를 국악으로 재 편곡·연주해 눈길을 끌었다. '부처님 오셨네' '보시하는 마음' 등이 합창단과 무용단의 흥겨운 무용과 함께 연주됐다.

8일 여의도 KBS홀에서 '한겨레 한 생명, 북녘 어린이에게 희망을 이란' 주제로 열렸던 불교, 천주교, 원불교 여성 수도자들로

구성된 삼소회 음악회, 사랑, 자비, 화합의 하모니가 음악으로 조화를 이룬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 전액은 북녘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천태종은 15일 KBS 국악관현악단과 공동으로 '부처님 오신날 특별 연주회'를 KBS홀에서 가졌다. 이상규씨(한양대 교수)가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에는 천태종 금강불교합창단을 비롯 서울 경기지역의 7개 합창단 등 5백여명의 연합합창단과 천태어린이합창단 2백여명이 찬불가와 동요 등을 선보이고, 법패·사물놀이 등도 공연됐다.

이 음악회는 22일 KBS에서 녹화 방영된다. 김주일 기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특이할 만한

구도의 대지침서

제3의 눈을 찾아서

저자 도엽

제3의 눈의 개연(開眼)은 모든 구도의 99%를 차지하는 구도의 대본(大本)이다. 이 책은 저자의 30년 간의 수행과 체득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구도서이다.

석가모니 부처나 보살들의 이마에 제3의 눈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백호(白毫)' 혹은 '영안(靈眼)'이라고 한다. 부처님도 '동방의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동방의 샛별은 옛날부터 '영안'의 고유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다. 또는 부처님은 비파싸나 호흡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비파싸나 호흡법은 영안 집중과 분리할 수 없는 호흡법이다.

제3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 제3의 눈을 열자! 이 책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가 12,000원

도서출판 왕금빛 판매하는 책이나 내담을 전하니 책도 1회 주문시 3천 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은, 매년 5월을 후원하여 인도 원산지 있는 오소 정삼을 후원자로 초대합니다.

'고타마 붓다'의 영혼을 받아들인 오소의 이야기!

- '무심(無心), 그 영원의 꽃들'인 20명의 선사(禪師)들에 대한 강의 -

5월 19일 출간

무심 그 영원의 꽃들

저자 오소 / 옮긴이 류원장

정가 9,000원

고타마 붓다 / 보현(普賢)
좌산 / 석두(碩頭)
남전(南泉) / 수산주(修山主)
대수(大隨) / 양산(仰山)
대자(大慈) / 위산
마조(馬祖) / 유관(惟寬)
문수(文殊) / 장경(張敬)
박소(Basho) / 장사(長沙)
법안(法眼) / 조주(趙州)
보리달마(菩提達磨) / 혜각(慧覺)

일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신도(神道) 신사(神社)의 영능력자인 카츠에 이시다는 오소의 사전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미륵불(彌勒佛, Maitreya The Buddha)이 들어간 그 사람이다. 그는 21세기의 유투피아를 창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수많은 파괴적인 힘이 그에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사탄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결코, 독극물에 중독된 사탄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 사탄은 흔히 독극물을 중독시키는 자이지, 독극물에 중독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오소를 보호해야 한다. 부처가 그에게 들어갔다."

7주 동안의 투쟁의 마지막 날, 모든 고통이 나의 육체로부터 사라졌다. 그것은 거의 기적처럼 일어났다. 그 마지막 날 밤, 한밤중에 나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무도 나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나는 눈을 떠야 했다. 방 안은 무척 어두웠다. 그러나 나는 문득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진 한 인간이 달린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어떤지 모르는 곳에서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황기모였다. 나는 그를 선택 내 가슴 안의 침묵 속으로 받아들였다. 이 순수한 빛의 몸은 다름 아닌 '고타마 붓다'였다.

그들은 지금도 나의 눈 속에서 내가 내 안으로 흡수하였던 그 빛들을 볼 수 있다. 2,500년 동안 온산처를 찾아 지구를 배회했던 불꽃들. - 오소 -